

全天候 農業基盤 造成事業과 새마을

韓國水文學會 金 始 源

序 言

지난날 우리 나라의 農業經營은 그 規模가 極히 零細하고 農家의 所有耕地는 分散되어 있었으며 耕地整理가 되어 있지 않아 農耕이 非能率의이었을 뿐 아니라 用·排水의 調節도 잘 안되고 農道施設의 不備 등으로 合理的인 營農은 期待할 수 없는 實情이었다.

그러나 5. 16革命 以後 國民經濟의 急速한 成長과 함께 耕地整理와 農業近代化에 對한 認識이 날로 높아가더니 70年代에 들어와서는 마침내 새마을運動의 거센 물결이 全國을 휩쓸게 되어 能代化作業은 加速化하고 農業의 面貌는 하루 하루 새로워져가고 있거니와 이제 生産基盤과 生活環境의 綜合的 整備는 生産, 所得의 增大 등과 함께 農村近代化의 時急하고 重要한 當面課題로 登場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過去와 같은 散發的이며 近視眼的인 農地改良事業이 아니라 豐饒하고 遠大한 農業의 未來像을 그리면서 全天候 多目的 農業開發을 實現하여 企業化된 產業體制를 造成할 수 있는 農業基盤의 整備는 勿論 農村生活의 環境整理까지를 念頭に 둔 綜合的인 事業으로 展開시켜 나가야 하겠다.

이와 같이 새마을 所得增大를 爲한 農業基盤의 綜合的인 整理의 方向을 耕地整理, 農業機械化, 環境整理의 세 가지로 大別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綜合的인 農地改良事業

過去의 農地改良事業은 그 對象地域이나 事業內容이 모두 狹少하고 近時眼的인 것이어서 效果面에 있어서도 이에 比例하는 小規模의 것 밖에는 期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다 크고 廣域的인 行政의 觀點에서 水利의 改善, 合理化, 道路의 整備는 勿論, 機械化의 促進, 農村工業의 導入, 農村公園의 設定, 觀光農業의 建設, 農住都市의 建設, 公害의 防止等 모든 土地利用 環境整備를 考慮한 바탕 위에서 살기 좋은 새마을 生活環境의 造成과 安定된 農業經營의 基盤을 構築할 廣範圍한 事業으로 發展시켜 가장 合理的인 땅과 물의 利用을 實現시켜 나가야 되겠다.

2. 農耕地의 整理

가. 논의 改良, 整備

옛날부터 우리나라 農業의 根幹은 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改良 整備도 매우 重要視되고 있다. 더우기 農家·戶當 平均耕作面積이 0.9ha에 不過한 形便이므로, 이것을 2倍로 늘인다 해도 2ha 未滿으로서 外國과 比較할 때 極히 零細經營의 域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耕地面積을 擴張하려 하여도 우리의 實情으로는 그 限度가 있으므로 結局이 零細한 耕作面積으로 外國農業에 對抗하는 길은 높은 土地生産 밖에 없다. 즉 좁은 耕地面積을 높은 收穫으로 補充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土地生産性의 向上에는 水利條件의 改良 整備가 急先務이니 灌溉 排水가 自由로운 논을 만들어 밭으로도 轉換할 수 있도록 하여 單位面積當 收穫量을 飛躍的으로 向上시켜야 한다.

나. 밭의 改良·整備

從前에는 논 耕地整理만을 생각했으나 最近에 논 밭의 改良 整備도 實施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밭은 耕地整理의 面에서 볼 때 樹園地(果樹, 桑田), 茶蔬밭(工藝作物도 包含), 普通作物밭(工藝作物도 包含) 普通作物밭, 草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果樹園과 桑田이 主가 되는 樹園地는 生産性을 높이고 共同作業을 容易하게 하기 爲하여 農道の 完備와 作目的 集團化가 必要하겠다.

茶蔬밭은 營農의 機械化가 어렵고 都市周邊에 많으므로 農地의 集團化가 大區劃化가 쉽지 않으며 外國農産物의 影響을 別로 안 받는다. 그러나 交通의 發達로 適地가 擴大되고 營農技術의 向上으로 生産競爭도 甚해지고 있어 農道の 整備와 換地 等に 의한 作物園地의 造成이 바람직하다.

普通作物은 大部分 機械化가 容易하므로 耕地整理를 하여 作物園地를 만들면 여전히 우리나라 밭作物의 優位를 차지할 수 있다.

草地는 酪農의 上昇勢에 反하여 外國乾草와의 競爭에서 威脅을 받고 있으나 機械化하기 쉬우므로 大型機械의 能率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草地로 改良·整備하여 이를 克服하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다. 農用地的 換地

生産力を 높이기 爲해서는 耕作面積을 넓히는 것이 必要하며 그 方法으로는 土地所有權을 그대로 두고 耕作權만 모은다든지 協同營農 等を 들 수 있다. 이때 몇개의 農家를 모은다 하여도 農地가 分散되어 있으면 農業의 合理化를 期할 수 없다. 따라서 耕地整理를 契機로 나가고 들어간 곳을 交換하여 部落別로 農用지를 集團化하여 協業, 機械化에의 大規模營農을 可能케 하는 方法이 되겠다.

3. 營農의 機械化

所得의 增大와 勞力の 節減을 爲하여는 營農의 機械化가 重要한 興件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政府에서는 이미 農業機械化 5個年計劃을 樹立하여 1972年을 起點으로 1976년까지 總 158億원의 資金을 풀어 全國에 22千餘臺의 各種 農業機械를 普及시키는 事業에 着手하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農業機械化計劃을 實現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附帶條件과 問題點들이 解決되어야 한다.

가. 耕地整理와 換地

農業을 機械化하여 作業 效率을 높이려면 먼저 耕地整理와 農用지의 換地가 이루어져야 함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다.

나. 協業과 集團化

經營을 大規模化하고 企業化시켜 生産性を 높이고 農家所得을 높이기 爲하여는 營農의 集團化作物의 集團栽培가 要望되며 機械의 效率의 最大活用을 爲해서는 協同作業이 必要하다.

다. 土地改良과 水利改善

土地의 改良은 灌溉·排水가 잘 되도록 하자는 目的이 있다고 하겠는데 特別히 機械에 依한 諸作業에는 土地의 습도를 調節하는 問題가 重要하므로 土地改良과 水利改善의 先行이 要望된다.

라. 技術教育和 水利施設

農業의 機械化로 새로운 機械가 普及되어도 이에 對한 操作技術이 없이는 充分한 活用이 어려우며 또한 그 整備나 故障及修理에 必要한 施設이 없으면 維持·管理에 支障이 많으므로 技術教育和 修理施設의 整備도 並行되

어야 하겠다.

위에 列擧한 問題點들 밖에도 作物의 品種 및 栽培技術을 機械化 營農에 알맞게 改良하는 問題라든지 農業機械化에 따르는 剩餘勞動力의 活用問題 등의 여러가지 問題가 있으나 이러한 難關을 合理的으로 打開하면서 政府와 農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努力한다면 農業의 機械化의 꿈은 早速히 實現될 것이다.

4. 農村環境의 整理

앞으로 農業經營이 大規模化되고 機械化됨에 따라 農村에서는 時間的, 經濟的餘裕가 생기고 衣食住의 改善은 勿論 各種 教育, 文化, 保健施設이 갖추어져 都市에 못지 않은 福祉文化生活을 營爲하게 되어야 한다.

가. 住宅地帶의 改良·整備

住宅地帶內 道路의 改修, 上下水道 等 衛生施設 새마을會館等 公共施設의 建設·畜舍의 移轉, 學校 醫療施設 商店, 交通機關等의 利用이 便利하고 農耕地로부터도 가까운 곳이어야 되겠으며 住宅 自體도 衛生的이고 文化的인 安息處로 改善되어야 함은 勿論이다.

나. 畜舍用地的 改良整備

畜舍는 惡臭, 病虫害 發生, 水質汚染等を 考慮하여 되도록 住宅地帶에서 隔離하여 汚物處理와 風向을 參酌하여 세우는 것이 좋겠으며 道路網이 便利하면 農地안에 세울 수도 있을 것이다.

다. 公共施設用地的 改良, 整備

農機械, 共同畜舍, 選果場等의 農業協同施設을 비롯하여 道路, 學校, 새마을會館等의 公共施設은 耕地整理 때에 便利한 場所에 共同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라. 綠地·公園·基地의 改良·整備

아름답고 살기 좋은 農村을 만들려면 山村의 遊休地나 荒廢한 땅을 綠地帶나 自然公園으로 改良 整備하여 環境美化에 힘써야 되겠고 過去 農地나 林野에 散在하던 墓地도 綠地計劃의 一部分인 共同墓地로 整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以上과 같은 새마을 建設을 爲한 生産基盤 및 環境의 綜合的 改良·整備方案을 要約하여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